

# “국제 전문가 참관 동창리 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내용

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흐름이 강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된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대목은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양국 정상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 발표 후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처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훌륭하다”고 반응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 핵’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한 반면, ‘보유핵’ (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를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 검증 등 실천적 의지 밝혀 남북·북미간 협의 폭 넓혀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중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남북, 북미 간 협의는 더욱 폭넓은 조치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유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총회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달 29일 연설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북미 접촉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구체화할 수도 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와 관련,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중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전쟁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 서해 평화수역 설정·GP 시범철수...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금지

###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CEZ)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충돌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은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

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적역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초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동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km, 서부전선은 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함께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 문대통령·김위원장, 날씨가 좋으면 백두산 천지까지 간다

### 김위원장 깜짝 제안으로 성사 김정숙 여사·수행원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을 함께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방북 마지막날인 20일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이 “천지까지 가느냐고 질문하자 “일단 백두산 남

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까지도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상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중간쯤에 끊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산행 방식에 대해서는 “버스를 타고 산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썰매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언제 백두산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사이의 일”이라며 방북 이전에 제안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가더라도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

을 통해 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쪽 아시는 분들 통해 중국을 거쳐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하며 이를 마다한 바 없다”며 “이런 점을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동행 인사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는 당연히 간다”며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을 포함한) 수행원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안공원에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 거기에서 내려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지연에서 (환승행사도) 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영 기자 jkpark@

### 문대통령, 24일 트럼프 만나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일 대통령이 도착하면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23일부터 미국에 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수석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나 한미 정상간 통화가 예정돼 있나 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